

오직 믿음인가? 회개와 믿음인가?(3)

- 읽을 말씀 롬 2:17-29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칭의의 수단으로 오직 믿음이 아닌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2장 12-16절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인 17-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 로마서 2:17-27

회개에 대한 강조는 16절에서 도 끝나지 않고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17-24절은 1-5절에서 말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입니다. 25-27절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의 망상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2장이 회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여러 구절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구절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2:6-11).”와 “…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2:13)”를 읽을 때,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2-15절에 의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에 새겨져 있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27절)이라고 말하지?” 라는 의문이 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정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마음의 할례’ 와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28-29)는 말에 근거해서 “이들이 믿는 이방인” 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들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문맥을 통해 2장 전체가 회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모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6-11, 13, 25-27절)은 모두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5-27절은 “**네가 (회개하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회개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회개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28-29절에 근거해서,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것은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정확히 따라가면, 2장에 믿음이 암시되어 있을 수 있어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게다가, 믿음은 1장의 서론을 제외하고 3장 19절 이후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2장이 회개에 대한 것이라는 바울의 논증의 흐름을 놓친 것으로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한편, 저는 13절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는 가상적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관해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27)**”에서 ‘온전히’ 라는 단어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전히’ 라고 했으니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보면, 바울은 25절에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할례가 유익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느냐? 회개하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느냐?’ 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7절은 이것의 반복이므로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이 율법의 행위를 뜻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온전히” 라는 단어를 쓴 것일까요? 이한수 교수님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전히” 가 예수님이 온전히 그 뜻을 드러낸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

다. 이 해석은 28-29절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과 잘 조화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는 이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아니라면, 회개는 모든 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겔 18:30-31) 회개하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거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하므로 그것을 내다보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을 더 강하게 질책하기 위해 온전한 자들을 예로 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어느 것으로 보든 저의 해석과 모순이 되지 않으므로 로마서 2장 전체는 회개장입니다.

5) 로마서 2:28-29

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신자(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새 시대의 선물입니다(골 2:28-29, 겔 11:19).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근거로 앞에 나오는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는 자에 대한 진술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행 2:38-39). 그러므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29절)”**는 표현이 믿음뿐 아니라 회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29절은 꼭 믿는 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는 구약성경에서 믿음이 아니라 주로 회개와 연관되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첫 구절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신 10:16)”**입니다. 그런데 그 전 구절을 보면, 선민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뜻임을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는 말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데, 다른 성구들을 보면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이 곧은 것이기 때문입니다(출 33:3, 신 9:6, 잠 29:1등). 다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신 30:6)”**입니다. 29절에서 “영” 은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답은 이 구절에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성

부 하나님은 친히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택하고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 1-5절이 징계(심판) 후의 회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시지 않고, 선민인 유대인일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행해주십니다. 다음으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렘 4:4)”**입니다. 이 구절 자체만 봐도 회개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4:1)”**는 하나님의 간청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사 55:7, 행 26:20 등). 마지막으로, 구약뿐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행 7:51-53)”**입니다. 이것은 스테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한 설교의 일부분으로, 마음의 할례에 대해 말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회개와 연결시켰고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장이라는 해석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발견은 참으로 무한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주장하고 강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 나눔과 적용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자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회개한 자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 참된 신자인지 돌아보고, 깊은 회개를 통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게 된 경험들을 나누어봅시다.